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기술

-문제점과 그 변천-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시작하며	II. 한국의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서
I.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관계 기술에	고조선·한사군 기술의 변용
대한 몇 가지 문제점	III.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맺음말

시작하며

근래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의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2001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의 중학교용 역사 교과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가 검정에 합격한 것과 관계가 있으며, 한일의 역사 연구자들이 이러한 논의에 몰두하여 근래에는 점점 學際적으로도 넓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한국 역사 교과서의 기술과 편찬 제도에 관한 여러 문제 등도 아울러 토의되고 있다.¹⁾ 이러한 것들은 이후 교과서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논의이기도 하여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이후에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 필자의 주요 연구 과제인 한국 고대사에 관한 한국 역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1) 조금 오래 전이지만 2001년 12월 22일에는 <일한합동역사연구 심포지움>이, 2003년 6월 21일에는 <한일 역사 관련 학회 합동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성과는 歴史學研究會 編,《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對話》(大月書店, 2004)로 간행되었다. 또 그 후에도 교과서의 기술을 둘러싸고, ひらかれた歴史教育の會 編, 2007 《『新しい歴史教科書』の<正しい>読み方》(青木書店) 등 도 간행되었다.

이루어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대 《국사》교과서의 고조선·漢四郡 기술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그 변천 과정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일본 고대사·한국 고대사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²⁾

I.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관계 기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한국 고대사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역사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대상으로 하는 왕조 그 자체와 여러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사료적 한계, 역사 연구의 전제가 되는 제반 역사 자료에 대한 평가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특정 역사적 대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개개 역사가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는 《사회》, 《국사》 교과서에서도 자주 눈에 띄는 바이다. 이를 세세한 점까지 헤아리면 꽤 많은 수에 이른다. 이들 하나하나를 들어 깊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지만 그것은 이후의 과제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한국의 역사 교과서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교과서의 기술에 공통된다고 인정되는 점들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1. 사료의 史實性에 대하여

우선 지적할 것은 사료의 史實性에 대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선 단군조선의 史實性의 문제이다.

《사회》 4-2의 <국사연표>에서는 단군의 초상화와 함께 ‘단군 왕검이 기원 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사회》 6-1에서도 그림 1과 같이, 단군의 초상화를 게재하고 아울러 카드와 같은 형식으로 ‘고조선의 건국’을 정리하여 ‘단군 왕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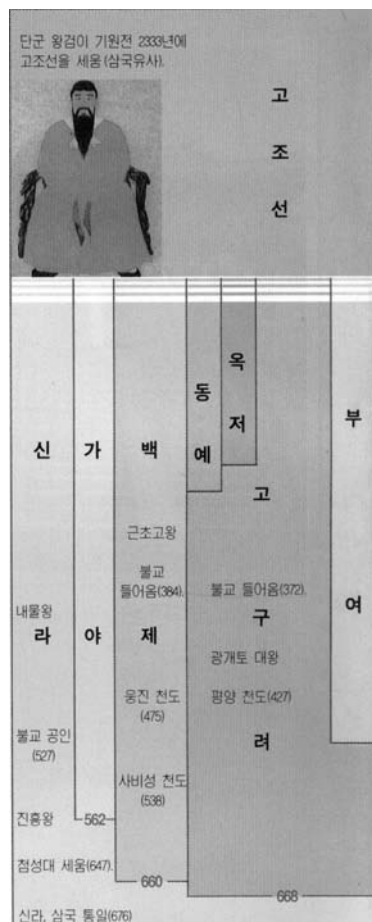
2) 이 글에서 언급하는 한국 역사 교과서는 《사회》 4-2 (2007년, 초판 2001), 《사회》 6-1 (2007년, 초판 2002),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중학교용)국사》 (2007년, 초판 2002),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고등학교용)국사》 (2007년, 초판 2002)이다. 이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 4-2, 《사회》 6-1, 《(중학교용)국사》, 《(고등학교용)국사》로 지칭한다. 또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판사명·검정년도를 적을 것인데 市販版에 대해서는 출판년을 게재한다.

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하였다고 쓰고 있다.

《(중학교용)국사》에서는 ‘단군은 이러한 부족들을 통합하여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고조선의 구체적인 건국 연대는 본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권말의 <국사 연표>에는 ‘기원전 2333년 단군, 아사달에 도움을 정하다(《삼국유사》)’라고 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거하여 그 건국 연대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

《(고등학교용)국사》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역시 그 건국 연대를 기원전 2333년으로 기재하고 있다. 단군의 건국 기사는 《(고등학교용)국사》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일 뿐 그것이 史實인지 어떠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에 기재되어 있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료 비판·사료 고증이 필요하다. 물론 교과서에 그 같은 사료 비판 과정을 기술할 필요는 없지만, 앞의 기술처럼 단군 조선의 건국 연대를 《삼국유사》에 보이는 단군 신화에서 구하여 그를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기술 방식은, 《삼국유사》에 대한 엄밀한 사료 고증에 근거한 기왕의 연구 성과에서 도출된 결론인지 여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琵琶型 銅劍과 지석묘의 분포 범위를 통하여 고조선에 대한 정력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³⁾ 이러한 성과에 근거하더라도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보이는 단군의 건국 기사를 갑작스레 수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단군 신화는 평양 지방에 전해진 고유 신앙에 불교·도교적 요소가 가미되어 형성



〈그림 1〉 《사회》 4-2 연표 (일부 생략)

3) 고조선에 관한 근래의 연구에 대해서는, 노태돈 편, 2000 《단군과 고조선》 (사계절) ; 송호정, 2000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 (푸른역사) 등을 참조. 또 근래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서는 송호정, 2007 <국가별의 연구의 흐름 고조선·부여·삼한>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가 있다.

된 것으로, 그것을 기록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삼국사기》(1145년)에 선행하는 《舊三國史》의 단군 관계 기사를 직접 인용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성립은 문헌상 적어도 11세기 이전으로⁴⁾, 10~11세기 무렵 거란의 고려 침공 시기에 형성되어 몽골군의 침입 등 한민족이 큰 수난을 받을 때에 민족 통합의 에너지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그 기사에서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주류이다.⁵⁾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한국 고대사 연구자에게 지지 받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서로 간에 논의해 나갈 필요도 있지만, 《(중학교용)국사》에 고조선 이해를 위해서 고고학의 성과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비파형 동검과 지석묘에 근거한 연구 성과를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보아,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기재된 연대를 고조선의 건국 연대로 설정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와도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것이다.

《(중학교용)국사》는 고구려의 건국을 기원전 37년으로 하고 《(고등학교용)국사》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이라고 한 다음 그 시기를 기원전 37년으로 하고 있다. 백제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중학교용)국사》, 《(고등학교용)국사》 모두 기원전 18년으로 하고, 신라의 경우도 《(중학교용)국사》, 《(고등학교용)국사》 모두 기원전 57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에 근거한 것이지만 《삼국사기》가 해당 시기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신라 중심으로 편찬되어 신라의 건국 시기를 의도적으로 고구려 이전으로 설정하였다고 생각되고 있다는 것⁶⁾을 전제로 한다면, 그 내용을 史實인 것처럼 교과서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중국 사료에서 고구려가 처음 등장하는 기사는 《漢書》 卷28, 地理志의 ‘玄菟郡【武帝元封四(前107)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 上殷台 … 西蓋馬 …’이며 기원전 2세기 말인 것이다. 백제는 《三國志》 東夷傳의 마한의 하나로 伯濟國을 기반으로 성장했는데, 중국 사료에서 확인되는

4)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33

5) 예를 들면 礪波護·武田幸男, 1997 《世界の歴史 隋唐帝國と古代朝鮮》(中央公論社); 吉田光男編, 2004 《放送大學教材 韓國朝鮮の歴史と社會》(放送大學教育振興會) 田中俊明編, 2008 《朝鮮の歴史》(昭和堂) 등.

6) 末松保和, 1996 <旧三國國と三國史記> 《朝鮮學報》 39·40, 田中俊明, 1977 <《三國史記》撰進と《旧三國史》> 《朝鮮學報》 83

최초의 기사는 《資治通鑑》卷 97, 永和 2년(345년)조로 그 후 372년에 처음으로 東晉에 조공하며 동아시아의 국제무대에 등장한다.⁷⁾ 신라는 《三國志》 東夷傳의 변진 12개국의 斯盧國에서 발전한 것으로 《自治通鑑》 卷104, 太元 2년(377)조에 고구려와 함께 前秦에 조공한 기사가 전해지고 있어 역시 백제와 마찬가지로 4세기에 성장을 이루어 국제무대에 등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중국 사료에서 확인된다는 것일 뿐이며 그 이전에 이미 흥기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漢 武帝가 현토군을 설치한 배후는 고구려족을 통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생각되므로⁸⁾ 건국 시기는 기원전 37년이라고 한 《삼국사기》의 기사보다 앞선다.

이러한 문헌 사료에 보이는 고구려·백제·신라의 활동 내용과 《삼국사기》 건국 기사의 불일치는 《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고등학교용)국사》에서는 보충 설명으로 ‘삼국의 건국 순서’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차례로 건국되었다고 하였으나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은 일찍부터 중국 문화와 접촉한 고구려가 가장 이르다”고 註記하여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 시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접촉이 늦어져서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이 뒤쳐져 버린 것으로 되어 버려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에는 외적 요인이 크고 내적 요인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외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왜 가장 먼저 건국한 신라가 가장 늦게 중앙 집권화된 것인가라는 소박한 의문이 따라붙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삼국사기》의 고구려·백제·신라의 건국 연대를 소개하면서, 이를 墨守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료 등을 제시하여 그 정합성을 가지고 건국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사료의 史實性的의 세 번째 문제점도 또한 《삼국사기》에 보이는 여러 나라, 여러 왕의 활동 기록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소 세부적인 사례에 속하지만, 《(중학교용)국사》, 《(고등학교용)국사》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에서, 고구려가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을 太祖王代(53~146)로 보고 있고 부족적 5部에서 행정적 5部로 변한 것은 故國川王代(179~197)로 보고 있다. 또한 백제에 대해서도 《(중학교용)국사》와 《(고등학교용)국사》 모두 古爾王代(234~286)에 한강 유역을 지배하고 官位 제도 등의 제반 제도를 정비하였다고 하고 있다.

7) 《晉書》 卷9, 咸安2年 春正月條

8)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이들은 모두 《삼국사기》의 高句麗本紀, 百濟本紀에 의거한 내용으로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되도록 史實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에서의 고대사 연구 성과를 전제로 편찬된 것일 터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중시하면서도 중국 사료와 대응되는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 3세기 무렵까지의 기사에 대해서는 곧바로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주류이다. 여기에 《삼국사기》의 사료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도 검토해야 할 중대한 문제인데, 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太祖大王紀 등에 대해서는 高句麗 王系 정비 과정에서 후세에 조작된 것이라는 견해도 한일 학자들에게서 지적되어 있으니,⁹⁾ 그만큼 이들 王紀에 기록된 기사를 언급할 경우에는 엄밀한 사료 비판 등 신중한 과정이 필요하다. 또 古爾王代의 관위 기사에 대해서도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7년(260)조에 보이는 백제 관위 사료가 백제의 관위제의 성립을 전해 주는 확실한 기사라는 보장이 없는 이상, 해당 기사가 《周書》, 《北史》, 《舊唐書》, 《通典》 百濟傳에 의거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후대에 정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⁰⁾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3세기대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 《삼국사기》의 기술을 그대로 史實로서 인식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삼국사기》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좀 더 신중하여도 좋지 않을까.

2. 한국 고대사에서의 중국 세력

다음에 다루려는 것은 ‘한국사’에서의 중국 세력에 대해서이다. 《사회》, 《국사》 어느 것이나 고조선부터 부여·고구려·백제·신라로 이어지는 계보가 상정되어 있는데, 이는 앞의 《사회》 4-2의 <국사 연표> 등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통상 “고조선은 14세기 이후 이씨의 조선 왕조에 대응하여 부르는 것으로서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을 합친 호칭이다. 다만 단군조선·기자조선은 신화전설의 시대이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면

9) 武田幸男, 1989 <高句麗王系成立の初段階> 《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노태돈, 2000 <초기 왕계의 구성> 《고구려사연구》사계절.

10)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体制> 井上光貞·西嶋定生·甘粕健·武田幸男 編,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朝鮮三國と倭國)》(學生社)

에서 말하자면, 위만조선에서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해 방식이 일반적이다.¹¹⁾ 여기에서 보이듯이 단군과 기지는 실재의 인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단군에 대한 기술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초등학교의 《사회》에 보이는 데 반해 기자에 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중학교용)국사》의 <도움글>에는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정치적 변화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 문헌에는 그러한 이해가 있었다고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같은 교과서에 '문헌 사료가 부족하므로, 고조선의 영토를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사료도 적고 箕子東來에 대해서도 전설적인 요소가 강하여 그 史實性에 대해 문제가 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補足'으로 설명하고 말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경우 똑같이 전설적 요소가 강한 단군조선에 대한 기술이 《삼국유사》의 기사를 인용하는 등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기자조선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는 것은 다소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史實性, 사료의 제약, 기자조선에 관한 기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단군조선의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간결하여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불균형은 이것만은 아닌 듯하다. 왜냐 하면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그러한 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사회》에는 보이지 않고 《(중학교용)국사》 이후에 언급되고 있다. 단군조선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언급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위만조선에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고조선이라도 단군조선이 위만조선보다 학습 상 중요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학교용)국사》에서는 위만을 '燕 지역에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넘어왔다'고 하고, 《(고등학교용)국사》에서도 그를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온 인물로 하면서도, <도움글>로 '위만조선의 의미'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위만이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국호를 조선으로 한 것, 토착민 출신자가 정권의 증추에 다수 존재한 점에서, '위만의 고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구태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위만조선은 위만을 중심으로 토착의 재지 수장층을 묶은 연합왕국적인 것이었다고 일찍부터 지적되었는데,¹²⁾ 그러한 지적에는 수긍할만한 부분도 있지만 굳이 북장, 국

11) 田中俊明 編, 2008 《앞 책》

12) 三上次男, 1966 <朝鮮半島における初期古代國家形成過程の研究>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吉



고조선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등장한 여러 나라

〈그림 2〉 《(중학교용)국사》

호, 토착민의 존재 등에서 ‘한국계’ 요소를 강조하는 듯한 서술이 이루어진 것은, 위만 자신이 중국(燕)을 출자로 하는 것과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단군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만 위만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것은 이러한 점과 관련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앞서 말한 기자도 또 전설상의 인물이라고는 해도 그 출자를 중국(殷)으로 하여 중국계에 속한다. 그에 비해 단군은 그와는 달리 이른바 ‘한국계’에 속한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계보다 한국계가 중시된 것일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의 역사적 무대인 현재의 중국 동북지방 및 한반도가 중국 대륙에 접해 있는 이상 한국사는 누차 중국 대륙 정세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중국계 인사의 한반도 유입, 혹은 중국 왕조의 한반도 직접 지배 등 ‘한국사’에 대한 중국의 관여를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사회》, 《국사》 속에서 논할 것인가는, 역사 교과서 편찬상 커다란 문젯음에 틀림없다. 그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漢武帝에 의해 위만조선이 멸망한 다음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및 기원전 107년에 설치된 현토군 등 이른바 漢四郡에 대한 기술이다.

《사회》 4-2의 앞의 연표와 본문에는 한사군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는 《사회》 6-1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교용)국사》에서도 확인되는데 해당 교과서의 <고조선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등장한 여러 나라> 그림 2에도 고구려, 옥저, 동예 등 東夷 여러 민족은 확인할 수 있지만 본래 거기에 그려져야 할 낙랑군 등은 찾아볼 수 없다.

《(고등학교용)국사》에서는 한사군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전부 스물네 줄로 이루어진 <위만의 집권>이라는 항목 중에 겨우 세 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거기에는 낙랑군과 현토군 등 개별 郡名은 보이지 않은 채, 설치된 군현이 토착민의 저항에 의해 차례로 폐지·철수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 <고조선의 사회>라는 항목 중에는 漢의 군현 설치 이후의 상황으로서 “한의 군현이 설치된 후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토착민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의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의 군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고 기술하여 한의 군현 지배에 의한 악폐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한사군에 대한 기술은 특히 간략하며 적대해야 할 것으로서 묘사되고 서술 항목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중학교용)국사》도 마찬가지로 2~3세기 동이 여러 나라의 상황을 기술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한사군이 일절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앞서 '중국계'의 활동보다도 '한국계'가 중시되었음을 지적하였지만, 그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기술이 일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의 군현에 대한 토착 세력의 저항은 한의 군현이 서서히 폐지되었거나 郡治를 서쪽으로 철수했던 것을 보아 수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원전 107년부터 고구려의 공격으로 낙랑 군치가 요동으로 철수한 313년까지 약 400년간 평양에 존재한 낙랑군과 그를 통하여 중국 문명의 일부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구려의 흥기에는 현토군에 대한 복속·저항 과정이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도 있고,¹³⁾ 낙랑, 대방군의 漢人 세력이 고구려 왕권과 백제 왕권에 받아들여져 이들 여러 나라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므로,¹⁴⁾ 그런 점에서 보아도 그들의 동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사군이 '중국사'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이상 그것을 《사회》와 《국사》에서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미 기술한 한사군의 한국사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한국 고대사 연구자인 강종훈씨도 지적한 것처럼,¹⁵⁾ 그들이 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처럼 《사회》, 《국사》에 보이는 '중국계'의 기술은 '한국계'에 비해 적거나 혹은 거의 무시되는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 기술이 이렇게 행해지는 것은, 《사회》, 《국사》가, 현재의 한국인에 계보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한국계' 여러 종족의 동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그것은 《국사》라고 하는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한반도에서 활동하여 '한국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여러 민족의 동향이 捨象되고 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사회》, 《국사》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 《국사》에서는 언제부터 이 같은 기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13) 田中俊明,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알 책》

14) 李成市, 1998 <東アジアの諸國と人口移動>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岩波書店)

15) 姜鍾薰, 2008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역사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선사 고대 부분을 중심으로 -> 《歷史教育》 106

이어서 역대 중학교·고등학교용 《국사》 교과서에서의 고조선·한사군의 기사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이 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한국의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고조선·한사군 기술의 변용

한국의 역대 중학교용·고등학교용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한사군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별표 1. 《국사》 교과서에서의 고조선·한사군>이다. 이하 이를 기준으로 고조선·한사군의 《국사》 교과서에서의 기술 내용의 변천을 살펴보겠다.¹⁶⁾

1. 단군조선에 대한 기술의 변화

단군조선은 표에 나타나듯이, 진단학회 《국사교본》(문헌 1, 별표 1의 문헌 번호, 이하 같음)이나 최남선 《중등국사》(문헌 2) 등에 보이는 것처럼 이른 단계에서부터 기원전 2333년에 단군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되어 있다. 진단학회 《국사교본》(문헌 1)은 단군이 건국한 조선을 ‘前朝鮮’으로 하여 뒤의 ‘後朝鮮’과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51·平壤條 등에 보이는, 단군이 건국한 조선을 ‘전조선’, 기자가 건국한 조선을 ‘후조선’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것일 것이다.¹⁷⁾

그런데 50년대가 되면 김상기 《고등국사》(문헌 4)처럼 단군조선의 건국을 단군에 의한 것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채 단군신화에는 해당 시기 사회의 일단이 반영되어 있다는 기술도 보인다.

60년대에도 역사교육연구회 《중등국사》(문헌 7)와 최남선 《국사》(문헌 8)처럼 단군에 의해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고 기술한 것도 있지만 위의 책과 같이 단군에 의한 단군조선 건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김상기 《고등국사》(문헌

16)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부분의 입수에는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선생(佐賀大)의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감사의 뜻을 표하여 둔다.

17) 역대의 교과서에는 고조선을 전조선·후조선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하 그를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이라고 논하기로 한다.

11)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이것이 단군신화의 줄거리거니와 이를 통하여 보면 겨례의 조상 또는 국가의 시조에 대하여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는 우리 先民들의 사상이 여실히 나타나 있으며, 단군이 왕검성에서 나라를 이룩하였다는 것은 사냥과 목축 생활의 무대인 산악 지대를 벗어나 농사에 알맞은 강가로 내려온 것을 말함이니 이는 농경 시기에 이르러 정착적인 부족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는 신석호 《국사》(문헌 14)에서도 확인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상의 신화(=단군신화)는 역사 사실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여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김상기 《고등국사》(문헌 11)처럼 단군신화에서 사람들이 수렵 생활에서 農牧생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읽어 내어 단군조선 사회의 한 측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단군신화를 곧바로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지 않고 거기에 단군조선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기술은, 한우근 《국사》(문헌 15)와 민영규·정형우 《국사》(문헌 16)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70년대에 편찬된 《국사》 교과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이상욱·차문섭 《국사》 문헌 17). 그리고 단군 왕검의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이라고 하는 이해가 이루어져 단군조선은 제정일치 사회였다고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배후에는 앞서 본 것처럼 단군신화를 곧바로 史實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인식이 존재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교과서의 기술을 보자면 80년대 이후에 변해 가게 된다. 즉 82년에 간행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상)》(문헌 26)에서는 《삼국유사》의 단군조선 건국 기사를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여 단군에 의한 조선 건국을 史實로 간주하여 그 연대를 기원전 2333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그 후의 《국사》에도 계승된다.

이렇게 본다면 단군에 대한 기술은 80년대에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단군에 의한 조선 건국을 史實로서 간주하려는 인식은 그 이전인 50·60년대에 도 확인되는 것이어서 80년대 이후 단군신화·단군조선에 대한 이해는 50·60년대의 단군에 대한 이해의 계보에 정립시킬 수 있다.

2. 기자조선에 대한 기술의 변화

진단학회 《국사교본》(문헌 1)에는 ‘後朝鮮’에 대한 기술은 확인되지만 건국자로서 기자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箕子東來說에 대한 불신감, 기자의 출자가 殷이라는

것과 관계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국사》에서는 기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택지도 존재하였겠지만, 40~50년대에 걸쳐 《국사》는 기자의 동래 전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석호 《중등국사》(문헌 3)에서는 기자가 실제로 동래하였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며 ‘한족은 위만의 침입으로부터 낙랑의 멸망까지 500여 년 동안 반도 일각에 뿌리를 박고 우리 민족과 서로 싸운 까닭에, 낙랑의 한인들은 평양 일대의 점령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기자가 이 땅을 개척하였다는 말을 지어낸 듯하다.’고 하여 기자동래설이 후세에 漢人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상기 《국사》(문헌 4), 조좌호 《중등국사》(문헌 6), 역사교육연구회 《중등국사》(문헌 7) 등에도 보이는 이해 방식이다.

이처럼 40~50년대에는 기자동래설이 후세에 漢人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되어 그 史實性이 적극적으로 부정된다. 이는 자료 비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일 테지만 《史記》 卷38 宋微子世家에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 …’ 등에 있는 것처럼 기자가 조선의 왕으로 책봉되었다는 기사가 있는 이상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국사》 집필자들의 문제 관심과도 크게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40~50년대의 연구자들도 적극적으로 기자 동래 전설을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60년대 중반부터 기자 동래는 처음부터 전설로서 사실성을 인정하지 않은 해석 때문인지 거의 교과서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 겨우 국사편찬위원회 《국사(상)》(문헌 27)의 주에 《史記》, 《漢書》地理志, 《삼국유사》 등에 기자의 동래 전설이 보이지만 史實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당연히 그 때까지 기자 동래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기자 동래 전설의 조작 과정에 대한 기사도 보이지 않게 된다. 이처럼 기자는 60년대 중반부터 교과서에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3. 위만조선에 대한 기술의 변화

위만조선의 건국자인 위만에 대해서는 《史記》 朝鮮傳에 ‘朝鮮王滿者, 故燕人也’라고 되어 있어 위만에 대해서도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를 어떻게 《국사》에 정립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남선 《중등국사》(문헌 2)일 것이다. 여기서는 ‘시방부터 2,100년 쯤 전에 오래 지나에 들어가 있어

서 지나인의 성질을 잘 아는 위만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거늘 나라에서 지나인에 관한 문제를 그에게 휩쓸어 맡기었다'라고 하여 위만은 본래 고조선 출신이었는데 燕에 거주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왕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똑같이 최남선이 집필한 《고등국사》(문헌 5)에서는 위만을 '燕에 가서 관리가 되었다'고 하며 《국사》(문헌 8)에서도 위만을 '오래 연에 있어서 중국인의 성질을 잘 아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위만을 고조선 출신이라고 함으로써 위만조선을 《국사》에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60년대가 되면 그가 중국을 출자로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홍이섭 《우리나라의 문화사》(문헌 10)와 같이 위만의 출자를 구체적으로 '燕人'이라고 쓰지 않는 기술이 보이게 된다. 이는 《국사》에 燕을 출자로 하는 위만의 활동을 쓰는 것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리라.

이러한 이해와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 《국사(상)》(문헌 29)의 주에서는 위만이 고조선에 입국할 때 상투를 들고 조선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에서 그를 '연 나라에서 살던 조선인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40~60년대 최남선의 주장과 흡사하다. 이러한 위만에 대한 해석은 동시에 위만의 자리매김이 《국사》 집필자들에게 문제였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것이지만 위만과 위만조선의 기술은 단군 관련 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적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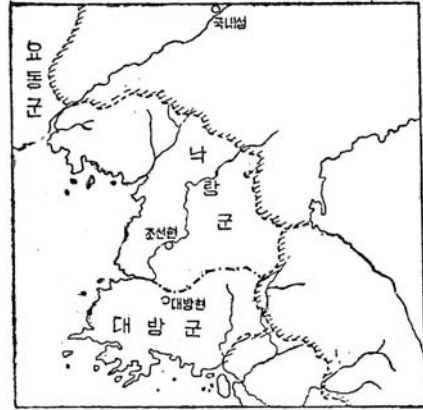
4. 한사군에 대한 기술의 변화

마지막으로 한사군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漢의 군현이었기 때문에 기자나 위만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국사》에 자리매김 하는 것이 《국사》 편찬자에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진단학회 《국사교본》(문헌 1)에서는 본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附】'를 설정하여 거기에서 낙랑을 중심으로 재래문화와 漢文化가 혼합되어 '낙랑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여러 나라에 준 영향은 적지 않다고 논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사군은 본문에서 논술되게 되는데, 한사군의 설치 지역이 그림으로 제시되고 그 변천, '낙랑문화'의 설명, 그것이동이 여러 종족에게 준 영향 등이 서술되게 된다.



한사군의 위치

<그림 3> 문헌 4의 한사군 그림



대방군의 위치

<그림 4> 문헌 4의 낙랑군·대방군 그림

예를 들어 김상기 《고등국사》(문헌 4)에서는 한사군과 대방군이 그림으로 제시되며 거기에서 출토된 銘文博과 유물 등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와 함께 ‘낙랑은 뒤의 대방과 함께 동방 세계에서 문화교류의 커다란 중심점이 되었다’고 평가하여 그와의 교류를 통하여 한반도의 여러 종족은 수준 높은 漢의 문화를 받아들여 스스로의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또 역사교육연구회 《고등국사》(문헌 12)에서는 한사군이, 첫째로 정치적으로 토착종족의 자각을 촉진하고 부족국가로 발전시켜 고대 국가 형성의 원동력이 된 것, 둘째로 사람과 물자의 왕래로 발달된 중국의 사회 제도가 재지 사회를 자극하여 발달을 초래한 것, 셋째로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 등으로부터 한사군이 ‘우리 민족에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문화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적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첫째, 한사군의 설치로 민족의 자각이 촉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최남선 《중등국사》(문헌 2)에도 있듯이 일찍부터 명시된 것이었다. 이는 한사군의 설치가, 이미 서술한 것처럼 한반도의 여러 종족의 부족국가 형성, 고대국가 형성의 원동력으로서 이해된 바도 있지만 漢에 의한 조선 지배라는, 이민족의 자국 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낙랑문화’ 등 한문화의 영향으로 조선 민족 고유의 순박한 풍속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좌호 《중등국사》(문헌 6), 최남선 《국사》(문헌 8) 등에서 확인되는데 한사군 설치와 그에 따른 한문화의 유입에 대한 비판이다. 한사군이 재지 사회에 미친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낙랑문화’를 소개하면서도 그를 ‘한의 문화’라고 하여 한국 고대 여러 종족의 문화와 구별하는 점이다. 한우근 《국사》(문헌 15)는 그와 같이 해석한 다음 그로 인해 한국 민족의 문화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이상욱·차문섭 《국사》(문헌 17)와 변태섭 《국사》(문헌 18) 등에도 확인되며 70년 전후부터 등장한다.

이처럼 70년대 이래 차츰 한사군과 낙랑문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등장하게 된다. 이는 한사군과 거기서 개화한 ‘낙랑문화’를 한국 민족의 역사·문화로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계없지는 않다.

그리고 문교부 《국사》(문헌 23) 이래 그때까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언급되어 온 한사군·‘낙랑문화’에 대한 기술은 점차로 적어진다. 문교부 《국사》(문헌 23)에서는 한사군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이 보이지 않게 되고 기술 분량도 한 쪽의 절반 정도가 된다. 더욱이 문교부 《국사》(문헌 24)에는 ‘한군현의 변천’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기재되어 있던, 한사군이 동이 여러 종족에게 준 영향과 한국사에서의 의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80년대에 간행된 문교부 《국사》(문헌 26)에서는 한사군에 대해 ‘그 후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세력을 뻗었으나 우리 민족은 계속 항쟁하여 그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는 기술만 있게 된다. 이는 본문에서 겨우 세줄이다. 당연히 종래 교과서 본문과 그림에 열거되어 있던 낙랑군·현토군·진번군·임둔군이라고 하는 개별의 군명과 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낙랑군 등 한사군 경시는, 낙랑군이 설치되어 있던 시기의 동이 여러 종족의 분포도에 낙랑군 등 한사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80년대가 되어 한사군의 위치는 극히 작아진 것이다.

이는 9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확인된다. 1996년에 간행된 문교부 《국사》(문헌 28), 문교부 《국사》(문헌 29)도 한사군에 대한 기술이 어느 것이나 겨우 세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현재에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 역대 《국사》 교과서의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 기술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략,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거의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는 데 비해 기자조선은 당초부터 거의 일관되게 교과서에 보이지 않는다. 또 기자의 동래 전설에

대해서는 40~50년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기술이 보이지만 머지않아 보이지 않게 된다. 한편 위만조선의 건국자 위만에 대해서는 조선인이면서도 燕에 거주하다가 다시 귀국하였다고 하는 지적이 40~50년대에 이루어지고, 근래 다시 한 번 확인되게 된다. 이처럼 교과서의 기술이 변화하여 왔지만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한사군에 대한 기술이다. 종래 그에 대해서는 ‘낙랑문화’와 함께 기술되었지만 70년대 중반 이래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군명과 위치를 기록한 그림도 사라져버린다. 이처럼 큰 틀에서 《국사》 교과서에서 ‘중국제’의 기술은 서서히 감소하여 간다. 이러한 변화가 해당 시기 한국에서의 한국고대사 연구의 동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점은 이후의 과제이지만 이러한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국사》 교과서가 작성된 것이다.

Ⅲ.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1. 신화 기술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하여, 근년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논급하였는데 이어서 이러한 시점을 가지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검증하고자 한다. 원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도 있고, 필자의 전문 분야도 아니라서 여기서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지적한 신화의 문제와 한국고대사에 관련되는 부분의 기술에 한정하여 논의할 것임을 밝혀 둔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 교과서 각각의 한국 고대사에 관한 기술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한국 고대사의 기술 경향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세계사B·일본사B의 한국 고대사 기술을 살펴보면 대개 세계사B에서의 기술이 매우 적은 것을 엿볼 수 있다. 세계사B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의 역사를 서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국 고대사에 관한 부분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별표 2는 한국 고대사에서 일찍부터 유명한 ‘광개토왕비’에 관한 중학·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년의 고교 교과서 중 일본사B에서는 2003년 검정의 三省堂 《日本史改訂版》·東京書籍 《日本史B》를 제외하면 모두 ‘광개토왕비’에 대한 기술과 사진이 확인되는 데 반해, 세계사B에서는 일부 교과서를 제외하

고 대부분은 ‘광개토왕비’에 대한 기술이 없고 사진을 게재한 것은 전무하다. 이는 ‘광개토왕비’에 왜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 일본 고대사에서 중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래 ‘세계사’의 일부를 구성해야 할 고구려의 자료 ‘광개토왕비’가 세계사보다 일본사에서 중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경향은 ‘광개토왕비’만이 아니라 한국 고대사 전반에 걸쳐 확인되며 이는 중학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고대사가 세계사 속에서 상세히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 고대사 기술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점검하여 보면, 한국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검토가 필요한 표기가 확인된다.

첫째로, 단군 신화와 관련하여 언급한 신화의 문제이다. 별표 3과 같이 현재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 중에는 《新編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05년 검정), 《中學生の社會科 歴史》(日本文教出版, 2005년 검정), 《中學社會 歴史》(教育出版, 2005년 검정)처럼 신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 한편,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 《中學生の歴史》(帝國書院, 2005년 검정), 《中學社會歷史的分野》(日本文教出版, 2005년 검정), 《中學社會歷史的分野》(大阪書籍, 2005년 검정),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 歴史》(日本書籍, 2005년 검정), 《新中學歴史》(清水書院, 2005년 검정) 등과 같이 신화를 다루는 것도 있다. 이 중 《中學生の歴史》(帝國書院, 2005년 검정)는 ‘天孫 강림의 신화’로서 일본의 니니기(ニニギ)의 강림과 고구려의 해모수의 강림을 소개하고 그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해모수는 고구려 신화가 아니라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출자인 부여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를 고구려의 신화로 소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를 제외하고는 위의 신화를 다룬 교과서에서, 신화에 관한 기술은 간단하게 신화 내용의 抄譯이 소개된 칼럼적인 것으로 분량도 결코 많지 않다. 이는 신화의 史實性이 문제시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합계 3쪽에 걸쳐 신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한 군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의 것은 <선조님의 선물 神武天皇과 東征 전승>이며 두 번째 것은 <선조님의 선물 일본의 신화>이다. 전자는 제목 그대로 진무천황의 동정을 설명한 것이며 후자는 <이자나기노미코토(イザナギの命)와 이자나미노미코토(イザナミの命)>, <아

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와 스사노노미코토(スサノの命)>,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와 니니기노미코토(ニニギの命)>의 3부로 구성되어 각각 신화의 내용을 소개한다. 또 <선조님의 선물 神武天皇과 東征 전승>은 <야마토(大和) 조정과 고분 시대>와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야마토 조정> 사이에 배치되어 야마토 조정에 의한 통일·국가 형성 과정과 연결하여 소개되어 있으며, <선조님의 선물 일본의 신화>는 <平城京의 조영과 奈良 시대>와 <울령 국가와 大佛 건립> 사이에 있어 《古事記》, 《日本書紀》의 편찬과 관련지어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등이 이에 앞서 집필한 《市販版 新しい歴史教科書 改訂版》(扶桑社, 2005)에도 <읽을거리 칼럼 神武天皇의 東征 전승>과 <읽을거리 칼럼 일본의 신화>가 확인되는데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와 비교하여 보면 기술 내용이 몇 군데 자구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배치 장소도, <神武天皇과 東征 전승>이 <야마토 조정과 고분의 확대>와 <야마토 조정과 동아시아> 사이에, <일본의 신화>가 <奈良 시대의 울령 국가>와 <飛鳥·天平의 문화> 사이에 있어서,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가 야마토 조정에 의한 통일과 국가 형성 과정에, 후자가 《古事記》, 《日本書紀》의 편찬과 관련지어서 논의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의 신화 기사는 《市販版 新しい歴史教科書 改訂版》(扶桑社, 2005)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후지오카씨도 참여한 것으로 이보다 앞선,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외, 《中學社會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년 검정)판에서도 신화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신화의 계승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변화된 부분도 확인된다. 신화의 내용을 전하는 곳이 《市販版 新しい歴史教科書 改訂版》(扶桑社, 2005)에서는 <읽을거리 칼럼>이었는데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선조님의 선물>로 바뀌어 있다. 같은 책의 설명에 따르면 <선조님의 선물>은 ‘일본의 풍토와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정보도 능숙하게 이용하여 만들어 낸 지혜와 문화, 전통의 이야기’라고 한다. 신화가, 여기에 소개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선조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여도 좋은지 의문이며, 이에서 보자면 신화의 취급이 보다 중시된 듯한 인상을 준다.

어쨌든 신화에 관한 교과서의 분량으로 보아, 또 이 책만이 다른 역사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 神武東征傳承과 이자나기노미코토, 이자나미노미코토 등의 신화를 비교적 상

세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보아,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가 신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처럼 다른 교과서에서는 신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든가 언급하여도 극히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예외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한, 이것이 이 교과서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고교의 역사 교과서에서 신화의 기술은 어떠할까. 중학의 역사 교과서의 경우, 《古事記》·《日本書紀》와 관련하여 신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확인되지만 고교의 역사 교과서의 경우, 필자가 아는 한, 아래에 지적하는 교과서 이외에는 모두 신화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最新日本史》(明成社, 2002년 검정)이다. 신화는 <제 1장 고대 국가의 형성>, <통일 국가의 성립>의 <일본의 건국 전승> 중에서 <일본의 통일 국가로의 움직임>의 <중요한 단서>로 자리매김 되어, 神武東征傳承, 崇神天皇代の 오비코노미코토(大彥命) 등 4 장군의 파견,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의 구마소(熊襲)·에미시(蝦夷) 토벌이 본문에 적혀 있고 <일본의 국토 창세 신화[國生み神話]>가 칼럼으로 소개되어 있다.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가 칼럼으로 신화를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여기에서는 신화의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고 또 神武東征傳承만이 아니라 崇神天皇代の 4 장군 파견 등도 소개되어 있어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와 비교하여 꽤 상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책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화의 내용을 본문에 그리고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는 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이 교과서뿐으로 다른 교과서는 전혀 신화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에서 보자면 이것도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화를 중시하는 역사 교과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개 이들 교과서는 史實이 아니라고 단정한 다음 신화를 일부러 게재하고 있는 것인데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신화를 소개한 다음,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스사노노미코토(スサノヲの命)·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의 ‘성장 모습을 조사하여 보자’,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모시고 있는 현지의 神社에 대해 조사하여 보자 등을 적어 보다 깊이 신화에 대해 검토할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신화를 소개한다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最新日本史》(明成社, 2002년 검정)에는 본문에서 神武東征만이 아니라 崇神天皇代の 4 장군 파견 등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

다. 이미 말한 것처럼 다른 교과서에서는 신화는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간단한 설명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학·고교의 역사 수업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史實로 인정하기 어려운 신화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경시할 수 없는 것은 이에 대한 역사학회의 지적·비난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로 교과서의 신화 기재에 대해서는, 2001년 간행된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이후 역사학자들이 문제시하여 여러 차례 비판이 있었다.¹⁸⁾ 즉, 신화·전승의 기재는 일본 역사의 기원이 천황 통치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신화·전승은 萬世一系를 강조하여 근대 국가의 군주로서의 정통성을 확인하려 한, 근대 일본의 현실적 과제를 배경으로 국민의 신화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소생한 것이다. 또 《古事記》, 《日本書紀》의 신화는, 7~8세기 초 고대 율령 국가를 성립시킨 지배자가 스스로의 정통성의 근원을 신의 시대에서 구하려 한 것이므로 《古事記》, 《日本書紀》에서 ‘민족’의 역사를 찾을 수는 없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지적은 기본적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神武東征 전승에 대해 ‘고대 일본인의 이상을 담아서 표현’된 것으로 ‘고대 사람들이 국가와 천황에 대해 지니고 있던 사상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굳이 알려 두고 있다. 일본의 신화도 《古事記》·《日本書紀》 편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神武東征 전승은 아마토 조정의 국내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고, 앞서 주장처럼 일본의 역사가 천황 통치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듯한 표기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역사학자의 비판을 받아들여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지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시하여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最新日本史》(明成社, 2002년 검정)도 또한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 간행 후 역사학자의 신화 기재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이 있는 다음에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체로 교과서에서는 신화를 다루지 않거나 다루어도 극히 간단히 표기하는 데 머무르고 있음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신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며 또 그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신화의 기재를 포함하여 이

18) 李成市, 2001 <古代史の問題点は何か> 小森陽一他 編, 《歴史教科書 何が問題か—徹底検証Q&A—》(岩波書店); 同, 2004 <日韓歴史教科書の古代史叙述をめぐって—『新しい歴史教科書』と『國定國史教科書』を中心に> 歴史學研究會 編, 《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對話》(大月書店) 등.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2. 고대 한일 관계사 기술에 대하여

두 번째 문제점은 고대 한일 관계사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이다. 전후 일본의 한국 고대사·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에서는 戰前에 주장되던 야마토 조정의 한반도 남부 지배에 대해서 정력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는 이러한 이해가 부정되어 있다. 교과서의 기술도 이러한 학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야마토 조정의 한반도 남부 지배의 상징인 임나일본부는, 아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의 일본사 교과서의 경우 《要說日本史》1971년 검정판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후 같은 출판사의 《詳說日本史》에서는 1981년 검정판, 같은 출판사 《要說日本史》에서는 1988년 검정판까지,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의 ‘가라(임나)’를 ‘세력 하에 넣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러한 표기는 보이지 않고 ‘그곳(가라(임나)) : 이노우에)을 거점으로 하여 고구려 세력과 대항하였다’(《詳說日本史》1983년 검정)고 표기가 바뀌게 되었으며, 같은 책 2006년 검정판에서는 ‘4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남하책을 추진하자 한반도 남부의 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가야(가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왜국(야마토 정권)도 고구려와 다투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다른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교과서 중에는 여전히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에 거점을 구축하여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듯한 인상을 주는 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확인된다.

그런 것으로, 우선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를 들 수 있다. 같은 책에서는,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조정이 ‘반도 남부의 임나(가라)라는 곳에 거점을 구축했다고 생각된다’고 하고 또 ‘562년 마침내 임나는 신라에 멸망하여 야마토 조정은 조선에서의 발판을 잃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2005년 검정의 다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왜가 ‘가라(임나) 지방의 나라들과 연결’하여 고구려와 대항하였다[《新編新しい歴史教科書》(東京書籍)], ‘가라(가야)와의 연결을 강화하여’고구려에 대항하였다[《中學生の歴史》(帝國書院)], ‘한반도 남부와의 관계를 심화하였다’[《中學社會歴史》(教育出版)],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뻗었다’[《中學生の社會科歴史》(日本文教出版)]라는 표기로 비교적 간결한 데 반해,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다른 교과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임나’ 멸망까지 적혀 있어서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이 책이 아마토 조정의 한반도 진출 과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광개토왕비’ 등에서 분명하듯이, 왜국의 군대가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아마토 조정이 4세기 후반에 ‘임나(가라)’에 거점을 구축하였다고는, 오늘날 한일 고대사·가야사 연구 수준에서 보아도 수긍하기 어렵다. 대체로 이러한 이해의 전제가 되는 사료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문제이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에서 아마토 조정과 한반도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이 이 책에 앞서 나온 《中學社會改訂版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년 검정)에도 확인되어 그에 대해 한국 고대사 연구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었음¹⁹⁾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구 수정만 있었을 뿐, 일관되게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역사학의 연구 성과가 거의 무시되어 있는 것이어서 역사가는 이점을 경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교과서에서 역사학의 성과가 반드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점은 일본에서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한일 역사학계의 공통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아마토 조정과 한반도 여러 나라의 관계에 대한 표기에서 주의가 필요한 교과서가 존재한다. 《日本史B》(實教出版, 2007년 검정)는 신라에 의한 가야 여러 나라의 지배의 주에, 《日本書紀》에서는 562년에 신라가 임나일본부 또는 官家を 멸망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부라는 말은 이 무렵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관가라고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일본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관가’는 실재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고대사·고대 한일 관계사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반도 남부에 일본 천황의 직할지인 ‘관가’가 존재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이러한 기술은 문제일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임나4현 할양’에 관한 표기이다. 별표 4는 이를 정리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實教出版, 《日本史B》(實教出版, 2007년 검정)는 오토모노 가나무라(大伴金村)의 실각에 관한 주에서, ‘아마토 정권은 512년에 백제의 가라(임나) 4현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하였는데 가나무라는 이와 관련하여

19) 李成市, <古代史の問題点は何か> 小森陽一他 編, 《歴史教科書 何が問題か—徹底検証Q&A—》

여 뇌물을 받았다고 비난을 받아 실각하였다고 한다’고 하여 야마토 정권이 ‘가라(임나 4현)’에 대한 백제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같은 출판사 《高校日本史B》(2007년 검정)도 ‘백제는 왜국으로부터 가라 서부(임나 4현)의 지배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왜국에 五經博士를 파견하였다’고 표기하여 역시 백제가 왜국에게서 ‘가라 서부(임나 4현)’의 지배권을 승인 받았다고 한다. 또 같은 책 본문의 그림 설명에는 512년에 ‘백제가 양도 받은 가라의 4현’이라고도 표기되어 있다. 이 경우 ‘양도하여 준’ 주체는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가라’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라’가 백제에 대해 ‘가라 서부(임나 4현)’를 ‘양도’하여 준 것이라면 왜 그러하였는지, 그렇게 되기까지의 경위가 필요하다. 대체로, 왜국이 백제의 가라 4현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는 본문을 참조하자면 이는 ‘왜국이 가라 서부(임나 4현)의 지배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백제의 ‘임나 4현’에 대한 지배를 왜국이 승인하였다고 하는 표기는, 이것 이외에도 2007년 검정본에서는 《日本史B》(三省堂), 《新日本史》(山川出版社)에서도 확인되며 그 이전의 것으로는 2002년 검정의 《最新日本史》(明成社), 2003년 검정의 《新日本史》(桐原書店) 등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전적으로 왜국이 한반도 남부의 귀속권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되어 백제의 ‘가라’ 지방으로의 영토 확대에는 왜국의 승인이 필요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확실히 근래 ‘임나 4현 할양 기사’는 백제로부터 왜국에게 백제의 전남 지역의 일원적 지배를 승인하고 협력하자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영산강 유역에 왜인과 그 자손인 倭系人이 일정 거주하여 백제-영산강 유역-왜국을 잇는 교역 활동을 행하고 있었으며 영산강 유역이 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지역이 백제 지배 하에 들어가자 倭人系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야마토 조정에서 크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였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설명 없이 왜국이 백제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고만 적는 것은, 앞에 말하였듯이 왜국이 당시 한반도의 지배 귀속권을 가지고 있었던 듯한 오해를 주게 된다.

대체로 이러한 이해의 한편에는 ‘임나 4현 할양’은 《日本書紀》에 있는 것처럼 512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백제의 웅진 천도(475년) 이후 장시간에 걸쳐서 영유하여 온 것을 《日本書紀》적인 표현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서,²¹⁾ 이에 대해

20)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検討> 《東北學院大學論集 歴史學・地理學》 39

21) 田中俊明, 2008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記事」の新解釋> 《第20回東アジア古代史 - 考古學研究會

서는 이후 학계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이 때문인지 ‘임나 4현 할양’을 직접 언명하지 않은 《高校日本史改訂版》(山川出版社, 2007년 검정)·《日本史B改定版》(清水書院, 2007)과 백제의 해당 지역 지배권 확립은 보여주면서 왜국이 그 영유권을 인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피하는 《詳説日本史》(山川出版社, 2006년 검정)도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이상 여기까지 한국의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기술 내용의 변천에 대해 논술하고 또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신화·한국 고대사에 관한 기술에 대해 언급하여 한일 양측의 교과서에 현재의 역사학의 연구 성과에서 보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한국 고대사·일본 고대사에 대한 양국 학계 또는 연구자 개개인의 견해 차이에 의한 것도 적지 않게 있다. 이 점은 역사학계의 문제로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계속하여 논의해 갈 필요가 있으며, 그만큼 해당 부분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하면서 보다 신중한 기술 태도가 요구된다. 또 그와 함께 연구 성과의 피드백을 비롯하여 역사학계와 교과서 작성자 사이의 한층 더 긴밀한 연계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역사학계의 성과와 지적이 몇 번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역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통일적인 견해를 보지 못한 것도 수많이 존재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교과서가 집필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역사 교과서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인 이상, 역사 교과서는 신념 등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사료 비판과 철저한 문헌 고증에서 도출된 논의를 기초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그것을 필수 작업으로 하여 연구를 진전시켜 온 역사학의 성과가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 연구자는 역사학 연구의 심화뿐만이 아니라 역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의 작성을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을 결코 소홀

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새삼스레 이를 필자 스스로의 경계로 삼고 또 이를 항상 의식하면서 이후의 연구를 진행해 갈 것을 약속하며 이 줄고를 마치고자 한다.

별표 1. 《국사》 교과서의 古朝鮮·漢四郡

※ 【 】 는 교과서의 항목

b>

번호	서명	간행 연도	출판사	집필자	檀君	箕子	衛滿	漢四郡
1	《國史敎本》	1946	軍政廳 文教部	震檀學會	檀君王儉께서 平壤(王儉城)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나라의 터를 닦으셨다(國紀元年은 西紀前 2333) = 前朝鮮	기술 없음 * '後朝鮮'도 인정되지 않음 만 건국자의 이름 없음	後朝鮮 準王 때에 일찍이 歸化하여 西部 國境 땅에서 세력을 모두고 있던 燕人 衛滿에게 나라를 양고 말았다(國紀 2140, 西紀前 194)	《漢의 四郡》은 【附】로 기재. "이 樂浪(平壤 一郡)을 中心으로 在來 文化와 漢文化가 交流하여 이른바 樂浪文化가(樂浪遺跡) 發達하였으며 이 文化가 우리 南北 여러 나라에 끼친바 影響도 적지 아니하였다."
2	《中等國史》	1947	東明社	崔南善	단군왕검이 평양에 건국 = 4280年前		衛滿 '시방'부터 二千百年 前에 오래 支那에 들어 가 있어서 支那人의 正統을 立 이는 衛滿이라 인물이 고국에서 지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	樂浪 支那本國의 進歩한 文物과 朝鮮 本土의 豊富한 物資가 合하여 相關한 文化를 만들어내었다→조선인의 민족과 국토의 자각을 촉진하였다
3	《中等國史》 (中學敎用)	1948	東方 文化社	申奭鎬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설했던 국가. 옛 기록에 의하면 서기 전 2333년 10월 3일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기자동래설에 대해서 는, 낙랑 한인이 평양 일대의 정령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기자가 조선을 개척하였다는 말을 지어낸 듯하다.	기원2140(前194)에 燕人 衛滿이 침입, 衛滿朝鮮이 성립(衛滿은 燕人, 조선에 망명)	낙랑문화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라는 항목에서 낙랑이 약 400년 존속하였고 중국의 문화가 유입, 낙랑문화가 우리의 고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4	《高等國史》	1957	章旺社	金彥基	단군신화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史實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는 우리 先民들의 사상이 여실히 나타나 있으며' 단군이 왕검성을 쌓았다는 것은 사냥과 목축 생활을 무대로 한 산악지대를 벗어나 농경 사회가 되어 정주 생활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자조선은 先秦文獻 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漢人의 正統적 의도에 서 지어진 말이 아니며 中국의 영향 밑에 서 '후조선' 계통의 사람이 기자를 그의 조상이라 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한다.	위만은 연에서 망명	【漢 古현의 변천과 그 영향】 漢四郡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정치적으로 는 부족국가였는데 중앙집권제를 채용/ 민족적 의식을 자각 / 낙랑은 뒤에 나타나는 대방군과 함께 동방 세계의 문화 교류의 커다란 중심 / 漢의 文化를 받아 들여 자신들에게 맞게 발전시켰다 / 중국의 철기문화의 영향은 커서 철기 시대의 돌입을 촉진
5	《高等國史》	1957	思潮社	崔南善	단군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原史	기자...君長의 새로운	위만은 '연에 가서 관리가	古현의 이름, 설치 장소 등의 그림 있음

6	《中等國史》 (中學校用)	1959	英知 文化社	曹佐鎬	를 전설적으로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사천수백년 전에 단군조선이 다스리는 고조선이 존재/단군은 왕의 고유명이 아니라 司祭	칭호/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의 후신으로 등장한 새로운 정치체 사 회	되어있는데 조선에 들어왔다 →진국	→다만 이로 인해 '本住民의 민족적 자각'에 의해 반항이 치열해졌다 / '친란한 낙랑문화'가 韓民族에 큰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 '사회제도'가 우리 사회를 눈뜨게 한 부분은 많다
7	《中等國史》 (中學校用)	1960	正音社	歷史教育 硏究會	단군이 약 4300년 전에 진국 '단군은 고조선의 시조'	전설에 따르면 殷의 기자가 조선으로 통해 →민기 어렵다. 漢族의 조선 지배를 위해 조작된 것	위만 : 漢에서 망명하여 귀 화	【한사군의 설치와 우리 동포의 반항】 ※四郡의 이름 설명 【낙랑문화와 그 영향】 중국의 진보된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낙랑문화가 형성되었다→'친란한 낙랑문화는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왜인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자문화와 정치제도, 진진문화가 국가 형성 단계 돌입에 기여, 다만 순박한 풍속을 잃게 되고 사대사상이 짙을 틈이 있었다.
8	《國史》	1962	民衆書館	崔南善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 = 4289년 전 = 前2333年	기자조선이라는 사회가 등장→기자조선은 후대에 조작, 실제는 기자조선은 고조선이 발달한 이후의 것	燕人인 위만이 기자조선에 망명	四郡설치 →'漢族의 지배에 의해 맹렬한 민족 저항이 일어났다 →단, 이는 '우리 나라 민족문화와 사회의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9	《國史》(中學校用)	1965	東國文化社	申昶鎬	옛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은 단군이 세운 나라로 서기 전 2333년	기자조선의 항목 있음. 다만 기자는 단군이 고쳐진 '개아지'라는 이름으로 태양의 아들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연나라에 살아 중국인의 성질을 잘 아는 위만이 조선으로 돌아왔다. 위만 = 조선인으로 연나라에 거주한 인물	【사군설치】 →'군현에 대항하는 조선인. 중국의 문화가 도입되고 조선본토의 풍부한 문화와 융합하여 친란한 문화가 형성/이 시기 우리나라의 문화는 중국인의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나라 문화를 형성하였는데 그 반면 그에 따라 고유의 아름다운 풍속을 잃게 되었다.
						기술 없음	서기 전 194년 燕人 위만이 고조선과 예맥·진변·임	四郡에 대한 기술은, 위만조선을 열망시켜 사군을 설치하였다고 하는 부분뿐이

10	《우리나라 문화사》(高等國史)	1965	正音社	홍이십	10월 3일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 '중국의 전국 시대에 이미 북방지방에 있던 연과 교통'	기술 없음	위만이 도망하여 조선에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위만이 燕人이라는 기술 없음.	어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漢의 四郡에 의해 민족의 단결을 의식, 단, 중국 인으로부터 한문 기타 문화를 배워 스스로의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기술/【낙랑 문화와 그 영향】 낙랑군이 400년 존재, 漢의 문화가 들어와 찬란한 문화가 성립 →그 영향이 부족국가에 들어와 조선의 생활 형성에 기여, 우리 나라의 고유 문화와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찬란한 세 민족문화를 형성시켰다
11	《國史》(中 또는 高?)	1967	章旺社	金彥基	단군신화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는 우리 先民들의 사상이 여실히 드러나 있으며, 단군이 왕검성에서 나라를 이룩하였다는 것은 사냥과 목축 생활의 무대인 산악 지대를 벗어나 농경사회가 되어 경주 생활을 한 것을 표시	기술 없음	위만이 중국에서 망명하여 온 사람들을 이끌고 고조신을 멸망시켰다고 한다. ※위만이 燕人이라는 기술 없음.	四郡설치→【한군현의 영향】 漢族의 침략에 의해 민족의식 고양/낙랑은 나중에 나타나는 대방군과 함께 동방세계 문화교류의 커다란 중심
12	《高等國史》	1967	敎友社	歷史敎育 硏究會	단군신화는 제정일치를 표시하는 고조선 부족국가의 건국 신화	제정일치의 사회에서 제정이 분리된 사회로 되었는데 이를 韓氏朝 鮮이라고 한다(옛 기록에서는 기자조선이라고 쓰고 있다), '단군조선과 한씨조선은	위만조선 중국에서 망명해 온 인물	【한군현의 문화와 그 영향】 漢四郡은 '우리 민족으로서 이민족지배를 강요받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반면 거기서 얻은 영향도 적지 않다. 그 영향의 첫번째는 정치적으로 토착 부족의 대두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민족의 지배는 토착민을 자각하게 하여 그 통치

13	《最新國史》 (人文系高校)	1968	實學社	李炫熙	단군신화의 내용을 후세의 조작이라고 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민속학적, 실화학적으로 연구하여 귀중한 고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발생의 최초로 간주	대동강 유역의 부족국가'	위만이 기원 전 2세기에 정권 탈취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술하지 않음.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족국가로 발전시켰으며 더욱이 고대국가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 발달한 漢의 정치 체제는 아직 미개한 상태에 있던 우리 나라 체민족의 정치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두번째는 사회적으로도 개발된 점이다. ... 세번째는 문화상 큰 영향을 준 점이다. ... 이처럼 찬란한 낙랑문화는 漢人에 의한 漢文化에 지나지 않지만 이는 당연히 우리 민족에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14	《國史》 (人文系高校)	1969	光明出版社	申奭鏞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보지는 않지만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변화한 것을 보여 준다.	기술 없음	위만이 조선에 귀화	【한】의 군현과 그 문화의 영향】漢의 문화가 고유의 문화와 융합하여 후에 삼국의 찬란한 민족문화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5	《國史》 (人文系高校)	1969	乙酉文化社	한우근	신화를 그 자체 역사적 사실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신화에서 고대인의 사상과 관념을 엿볼 수 있다.	기술 없음	위만이 건국(기원전 194년)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술하지 않음.	4郡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 【한군현】의 문화와 그 영향】낙랑문화 = 漢文化 →이에 의해 문화 발전은 저해되었다 /

16	《國史》 (人文系高校)	1969	陽文社	閔泳柱· 鄭亨愚	공승배/농업사회를 보여준다/왕권의 세습화/단군은 제사장, 왕권은 정치적인 군장을 의미한다, 제정 일치	다.→토템 숭배 등 / 단군왕검은 새로운 부족국가의 정점에 군림한 고조선의 군장	위만이 건국(기원전 194년)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술 없음.	【한문화의 영향】 군현의 설치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군현제도의 이식 / 漢의 침투로 우수한 철기문화가 유입 / 경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근공 생활을 강화했다 * 사군 설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 【한문화의 영향】 * 한사군에 관한 기술이 적다(4쪽 이하) 【한문화의 영향】 경제적인 착취를 감행 / 군현은 변진의 침, 낙랑의 소금을 비롯해 토산물의 중계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어→낙랑문화는 이같은 행위를 바탕으로 꽃피웠다 / 토착세력은 우수한 한의 문화를 접취하려고 노력하여 그를 역이용하여 부족 단결, 산업을 발전시켜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 강인한 진취성을 보인다	【한문화의 영향】 군현의 설치에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군현제도의 이식 / 漢의 침투로 우수한 철기문화가 유입 / 경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근공 생활을 강화했다 * 사군 설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
17	《國史》 (人文系高校)	1970	文號社	이상욱· 차문섭	신화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단군신화가 평양을 중심으로 성립한 것은 최초의 왕조가 평양을 중심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단군은 제사장, 왕권은 정치적 군장을 의미한다 / 공과 호랑이는 토렘신앙과 관계, 단군신화는 몽고의 지배하에 고생하던 고려 시대에 이르러 민족신화로서 발전하였다. 그 후 단군은 민족독립정신과 통일 의식을 상징하였다	위만이 기원전 194년에 세워진 왕조를 건설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술하지 않음.	【한문화의 침취와 그 영향】 한사군을 설치→'낙랑문화'(*이는 우리 토착민과 관계없는 중국인의 문화이다', '한문현의 설치는 한반도의 부족사회에 정치·경제·사회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한사군을 통하여 고도로 발달한 철기문화가 전파되어 농구 등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증가되어 안정된 철기문화로 되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의 정치제도가 수입되어 토착민 사이에 자극을 주어 종전의 사회 조직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였다(한족의 지배에 의해 민족 의식 고양	대륙에서 다수의 한인이 한반도에 유입, 위만도 그 중 하나.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술 없음	【한문화의 침취와 영향】 한문화의 침취는 우리 나라 사회에 거대한 변혁을 초래하였다→금속문화 전파는 축정권의
18	《國史》 (人文系高校)	1972	正音社	歷史教育 硏究會	《삼국유사》에 보이는 단군의 기록은, 건국신화로서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여 주는 건	대륙에서 다수의 한인이 한반도에 유입, 위만도 그 중 하나.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술 없음	【한문화의 침취와 영향】 한문화의 침취는 우리 나라 사회에 거대한 변혁을 초래하였다→금속문화 전파는 축정권의		

19	《國史》 (高校 全學年)	1972	一潮閣	李丙蓆	<p>쿠이념의 하나/꿈승배, 제정일치, 원시적 농경, 부족국가</p> <p>* 단군관련 기사로 생각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서 불명/다만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보아, 단군신화를 부족세력의 교대를 보여 주는 것이며 평양 지역에 일찌부터 부족국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p>	기술 없음	<p>라는 표기 없음.</p> <p>齊·燕에서 망명인이 조선에 들어오다→위만도 그중 하나라고 한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위만을 燕人이라고 한다</p>	<p>증가와 농업기구의 발전, 대륙적 제도의 수입과 영향에 의해 정치적, 민족적 각성을 촉진 → 고대국가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p> <p>【한군현의 변천】 【낙랑·대방의 문화와 그 영향】 낙랑문화가 토착사회에 금속문화를 보급하여 거대한 변동기를 초래/조선인의 순박한 풍속이 상/철기시대에 돌입→추장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알려 주어 군현지배를 받지 않는 지방에서는 많은 부족국가가 정립</p>
20	《國史》 (人文系高校)	1973	東亞出版社	李弘植	<p>신화 속에서 역사적 진실을 추구 →태양숭배, 제정일치, 꿈을 정점으로 하는 토렘숭배가 존재</p>	기술 없음	<p>요동에서 온 위만이 정권을 탈취(간궐) ※위만이 燕人이라는 표기 없음</p>	<p>【한문화의 침취와 그 영향】 한문화로 인해 발전에 커다란 제약/고도한 철문화가 급속히 확대/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통칭하여 고대통일국가를 형성하고 군현을 추방</p>
21	《國史》 (高校 全學年)	1973	法文社	邊太燮	<p>단군신화 중에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하늘에 의해 왕의 권위를 나타낸다. 토렘 신앙, 제정일치/단군신화는 처음에는 대동강 유역에 성립한 고조선의 지역적인 건국전설에 지나지 않았는데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이며 이른 단계에서 넓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전민족의 시조 신화가 되었다.</p>	기술 없음	<p>요동에서 온 위만이 정권을 탈취(간궐) ※위만이 燕人이라는 표기 없음</p>	<p>한군현의 지도/낙랑문화!...漢文化에 지니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는 아니다/타민족에 의한 지배는 유감이지만 한군현 지배가 준 영향은 적지 않다/현의 문화는 고도의 문화였기 때문에 현인의 통치가 조선의 토착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문화상의 의미 2. 사회생활의 발전 3. 정치상의 변화→토착민의 자각을 촉진, 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민족운동을 유발→독자적인 정치 권력의 성장, 철기문화에 의해 부족국가가 대두/이처럼 현의 군현지배는 문화·사회·정치 등 각 방면에 걸쳐 비상히 큰 영향</p>

22	《國史》 (人文系高校)	1973	敎學社	이원순	단군신화는, 고조선 사회가 수호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중심으로 한 제정일치의 사회로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진 지도자의 통솔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기술 없음	고조선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포섭, 위만은 그러한 인물의 하나, 기원전 194년에 건국	을 주어 우리 사회를 크게 발전시킨 것이다'
23	《國史》 (中學校)	1975	文敎部		단군신화를 소개한 다음, 줄 민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와 같은 건국 신화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여러 형편을 신비스러운 내용으로 표현한 것이며, 따라서 이 신화가 지닌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이 건국 신화를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기술 없음	기원전 2세기에 중국에서 이동하여 온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고 건국	【한문화의 침취】 한사군의 지도 설명 있음 【낙랑의 문화】 【한문화의 침취와 그 영향】 한문화의 조선 유입을 조래/월기문명은 군현 하의 조선인에 영향을 주었다/군현과의 접촉에 의해 동포의 사를 가지고 단결, 부족국가로부터 고대 국가로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순박한 풍속이 악화
24	《國史》 (人文系高校)	1977	文敎部		【단군신화】 우세한 부족 중에는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하늘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의 변신인 여인 사이에 출생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단군신화를 가지게 되었다'/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며 단군왕검은 제정일치의 족장'/최신신앙이 성립	기술 없음	북중국 방면에 있던 유이민 세력의 대표인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	【한문화의 변천】 (반 쪽, 13줄뿐) / 四郡은 교통로에 설치 / 군현에 대항하는 토착세력을 견디지 못하여 임둔군과 진변군은 폐지, 현토군은 요동방면으로 후퇴/다만 낙랑군과 대방군은 오래 존속하였다
25	《國史》 (中學校)	1979	文敎部	國史編纂委員會	【단군신화와 그 의의】 단군 신화에는 한국 민족의 사상과 역사	기술 없음	기원전 2세기에 중국에서 이동하여 온 위만이 준왕	【고조선의 변천과 한의 군현】 사군 설치(사군의 이름 없음) / 한민족의 끈질긴

26	《國史》(上) (中學校)	1982	文敎部	國史編纂委員會	적 사실의 일면이 들어가 있다/독립국가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가 중국과 같은 오랜 전통을 가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단군의 건국】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기원전 2333년)/고조선의 군장을 단군왕검이라고 불리(《삼국유사》의 단군신화의 내용은) 단군이 건국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한민족이 '역사적 전통을 가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술 없음	기원 전 2세기에 중국에서 이동하여 온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고 건국을 쫓아내고 건국을	지항에 의해 철퇴 ※전체적으로 고조선에 대한 기술은 간략
27	《國史》(上) (高等學校)	1982	文敎部	國史編纂委員會	【단군의 건국과 고조선】 단군은 체사장을,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단군왕검은 체장일치 시대의 종장. 건국과정은 《삼국유사》에 보인다고 지적. 주에 단군신화는 한민족의 건국 과정의 역사 사실과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밝혀 주고 있다고 지적 * 주에 (기자조선은) 고조선의 발전과정에서 사회 내부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보아 이를 환씨(韓氏) 조선이라는 견해와 동이족의 이동 과정에서 기자로 상정되는 어떤 부족이 중심이 되어 정치세력을 잡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주에 '고조선의 발전과 관련하여 기자(箕子) 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중국의 《사기》, 《한서》 지리지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중국의 기자가 조선 왕에 책봉되어 동래하였다고 하였고, 『帝王韻記』에는 기자조선은 後朝鮮으로 하고 準王 때 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기원전 2세기 초, 고조선 북방에 와서 이주민의 대표가 된 위만은, 고조선의 준왕을 쳐서 왕위를 빼앗았다. * 위만의 구체적인 출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漢은 고조선의 일부지역에 낙랑·진반·임둔·현도의 4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이들을 추출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고 쓸 뿐/ * 【한의 군현】에 관한 항목과 그 외의 등에 대한 기사도 없다. 단, 주에 '한의 고조선 지역에 설치하였다는 4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설과 요동, 요서지방설이 있다고 한다. 평양에 낙랑군이 설치된 것은 그 유물로 보아 분명한 것인데 이와 아울러 요동, 요서지방설을 기계한 것은 평양 등에 4군이 설치된 것이 반드시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28	《國史》(上) (中學校)	1996	文敎部	國史編纂委員會	【단군의 고조선 건국】 요동성에 서부터 한반도 서북에는 군장이 다스리는 부족이 존재하였는데 '	기술 없음	서측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한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다.	四郡에 대한 기술은 겨우 '한은 고조선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반격을 받아 물리졌다.'고 되어

29	《國史》(上) (高等學校)	1996	文教部	國史編纂 委員會	<p>단군은 이러한 부족들을 통합하여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기원전 2333년)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한국의 역사가 유구한 것을 말하여 준다. / '단군'에 의한 고조선 건국(기원전 2333년)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p> <p>【단군과 고조선】 고조선은 단군 왕검(檀君王儉)에 의해 건국되었다(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전하는 단군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시조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단군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다./단군의 초상화 있음/단군의 기록은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p>		<p>중국에서 온 유이민을 고조선 서쪽에 안치시켰는데 그 중에서 위만은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 단, 주에 위만이 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연 나라에서 살던 조선인으로 생각된다'고 기술하고 위만이 나라 이름을 그대로 둔 것, 그 정권에는 토착세력이 많은 것에서 위만의 고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p>	<p>* 위만의 출자를 중국인·燕人이라고 명확히 기술하지 않음</p>	<p>있을 뿐. * 한사군에 대한 기술은 겨우 3줄, 군명은 보이지 않는다. 【한의 군현】이라는 항목조차 없어졌다.</p>
				기술 없음	<p>四郡에 대한 기술은 겨우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드디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13)' * 濊四郡에 대한 기술은 겨우 3줄. * 肅慎도 보이지 않으며 낙랑군의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다 * 또 사군이 한민족의 역사에 미친 영향도 기술하고 있지 않다.</p>				

별표 2. 고교 교과서의 '광개토왕비' 기술

검정 연도	교과서명	출판사	기술	사진	비고
2007	新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	○	
	高校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	○	
	日本史B 改訂版	三省堂	○	○	
	日本史B 新訂版	實教出版	○	○	
	高校日本史B	實教出版	○	○	
	日本史B	清水書院	○	○	
	新世界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	×	
	詳說世界史	山川出版社	△	×	보주에 기술 있음.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新詳世界史B	帝國書院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世界史B	三省堂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또 본문에 광개토왕비의 설명 있음.
2006	世界史B改訂版	清水書院	○	×	
	詳說日本史	山川出版社	○	○	
	高校世界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新選世界史B	東京書籍	×	×	
	世界史B	東京書籍	△	×	보주에 기술 있음.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본문에 광개토왕의 설명 있음.
2006	世界史B 改訂版	實教出版	△	×	보주에 기술 있음.
	改訂版世界史B	第一學習社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2003	日本史B 改訂版	三省堂	○	×	
	新日本史	山川出版社	○	○	
	高校日本史	山川出版社	○	○	
	新選日本史	東京書籍	○	○	
	日本史B	東京書籍	○	×	
	新日本史B	桐原書店	○	○	
	日本史B	三省堂	○	○	
	日本史B	清水書院	○	○	
	日本史B	實教出版	○	○	
	高校日本史B	實教出版	○	○	
	高校世界史B	實教出版	○	×	
	世界史B 100	清水書院	○	×	
	世界史B	三省堂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또 본문에 광개토왕의 설명 있음.
	新世界史	山川出版社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高校世界史 世界史B	山川出版社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2002	詳說日本史	山川出版社	○	○	
	最新日本史	明成社	○	×	
	世界史B	實教出版	○	×	
	世界史B	東京書籍	○	×	

	高等世界史 B	帝國書院	×	×	
1997	詳説日本史	山川出版社	○	○	
	詳説世界史	山川出版社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1993	詳説日本史	山川出版社	○	×	
	詳説世界史	山川出版社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1992	要説日本史	山川出版社	△	×	보주에 기술 있음.
	詳説世界史	山川出版社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1991	詳説日本史	山川出版社	○	×	
1989	新日本の歴史	山川出版社	○	×	
	要説世界史	山川出版社	×	×	

○ 중학 교과서의 '광개토왕비' 기술

검정 연도	교과서명	출판사	기술	사진	
2009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	○	
2005	新編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	×	보주·지도에 기술 있음
	改訂版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	
	中學生の歴史	帝國書院	×	×	
	中學社會歷史的分野	日本文教出版	×	×	
	中學生の社會科 歴史	日本文教出版	×	×	
	中學社會 歴史	教育出版	×	×	
	中學社會歷史的分野	大阪書籍	×	×	
	新中學校歴史	清水書院	×	×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歷史的分野	日本書籍	△	×	지도에 광개토왕비 있음
2001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	×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	
1996	新編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	×	보주에 기술 있음.
1992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	×	보주에 기술 있음.
1989	新訂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	×	보주에 기술 있음.

○ ; 기재 △ ; 보주(補注)·지도에만 기재, × ; 기재 없음

별표 3. 중학 교과서의 神話 기사의 기재

검정 연도	교과서명	출판사	神武	神話	
2009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	○	
2005	新編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	×	
	改訂版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	
	中學生の歴史	帝國書院	×	○	간단한 칼럼, 고구려의 신화로 해모수를 등장시킨 것은 문제, 해모수는 북부여의 왕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는 부여, 동부여의 이전의 舊都)
	中學社會歷史的分野	日本文教出版	×	○	大阪書籍과 같은 내용, 저자는 같은데 발행자는 다르다.
	中學生の社會科 歴史	日本文教出版	×	×	
	中學社會歷史的分野	大阪書籍	×	○	日本文教出版과 같은 내용. 저자는 같은데 발행자는 다르다.
	中學社會 歴史	教育出版	×	×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歴史歷史的分野	日本書籍	×	○	이즈모(出雲)의 땅 끌어 오기 [國引] 신화, 칼럼에서 간단히.
新中學校歴史	清水書院	×	○	신화와 전승이라는 칼럼. '신화는 고대 일 본인의 자연관이 드러나 있는 것이 많다'	
2001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	×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	

※'神武'는 神武天皇의 동방 정벌(東征) 전승에 관한 것을 가리키며 '神話'는 기타 신화를 나타낸다.

별표 4. 고교 일본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일본고대사 관계 기술

연도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쪽수	비고
2002	明成社	最新日本史	…야마토 조정(大和朝廷)은, 게이타이 천황(繼體天皇)을 옹립한 오무라지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連の大伴金村)의 의견에 따라 백제가 임나(任那)의 4개 지역(縣)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후 임나는 점차 쇠퇴하여 562년 마침내 신라에 멸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거점을 잃게 되었는데 백제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대륙 문화와의 설정을 남겨두었다. 대외 정책의 실패로 인해, 그를 담당하던 오모토씨는 실각하고(주 : 모노노베노 오코시(物部尾興)가, 백제의 임나 4현 지배 당시 오모토노 가나무라가 백제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고 탄핵하여, 540년 가나무라는 실각하였다.)…	21	
2003	桐原書店	新日本史B	…한반도에서는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세력이 한층 강화되었는데 같은 무렵 신라도 또한 강대해져서 백제와 가야(가라, 임나) 여러 나라를 압박하였다. 게다가 6세기 초 오모토씨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을 실패하여(《日本書紀》의 기술에 따르면, 오모토노 가나무라가 이른바 임나 4현을 백제의 지배에 맡겼기 때문에 반감을 사게 되어 오모토씨는 실각하였다고 한다), 이윽고 한반도의 야마토 정권 세력은 크게 흔들렸고 마침내 562년 가야 여러 나라는 신라에게 멸망하였다.	36	
	東京書籍	新選日本史	…한반도에서는 5세기 후반 무렵부터, 고구려의 압박을 받은 백제와, 국가의 조직을 정비한 신라가 남쪽의 가야 여러 나라에 세력을 뻗었다. 야마토 왕권(大和王權)은 한반도에 병사를 보내 가야 여러 나라와 결속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562년에 이르기까지 가야 여러 나라는 백제·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가(주 : 532년 임나(금관국)도 신라에 병합되었다) 야마토 왕권의 한반도에서의 거점은 상실하게 되었다. … 소가씨(蘇我氏)는 도래인과 손잡고서 조정의 재신권을 장악하여 6세기 말에는, 오모토씨(大伴氏)를 대신하여 세력을 떨치고 있던 모노노베씨(物部氏)를 무너뜨렸다.	26	4현 할양' 기사 보이지 않음
	東京書籍	日本史B	…6세기에 들어서자 한반도에서는 북방의 고구려의 압박을 받던 신라와 백제가 국내의 체제를 정비하여 고구려에 대항하게 되고 나아가 야마토왕권(大和王權)의 영향 하에 있던 남부의 가야 여러 나라에 진출하였다.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유력 호족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伴金村)와 모노노베노 오코시(物部尾興)가 대립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로 인해 신라·백제의 움직임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결국 562년에 이르기까지 가야 여러 나라는 신라와 백제에 병합되었다(주 : 512년에는 가야 여러 나라의 서부 지역(《日本書紀》에 따르면 ‘임나 4현’)이 백제의 지배 하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역은 562년까지 신라에 병합되었다.)	32	4현 할양' 기사 보이지 않음
2006	山川出版	詳説日本史	… 6세기의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은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남하하여 가야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였기 때문에 가야 여러 나라는 562년까지 차례로 백제·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가야 여러 나라와 연결되어 있던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에서의 세력은 후퇴하였다. 6세기 초의 정치를 주도한 오모토씨(大伴氏)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세력을 잃어(주 : 6세기 초에 가야 서부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권을 확립시킨 것이 실정이라고 하여 오모토노 가나무라(大伴金村)는 실각하였다고 한다.)…	29	4현 할양' 기사 보이지 않음

2007	實敎出版	日本史B	<p>…6세기에는 백제·신라가 국가로서 체제를 정비하여 국가적 통일이 뒤쳐진 가라(임나) 지방에 세력을 뻗었다. 야마토 정권(大和政權)도 이전부터 이 지역의 일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신라는 562년에 가라 여러 나라의 주요부를 영유하였다(주 : 《日本書紀》에서는 562년에 신라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또는 관가(官家)를 멸망시켰다고 전한다. 일본부라는 말은 이 무렵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관가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 6세기 전반 오무라지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連の大伴金村)가 대조선 정책(對朝鮮政策)의 실패(주 : 야마토 정권은 512년에 백제의 가라(임나) 4현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하였는데 가나무라는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비난을 받아 실각하였다고 한다)로 인해 실각한 후, 그림. 백제의 지배권을 용인한 가라의 4현</p>	54	官가가 존재하였다는 주
	實敎出版	高校 日本史B	<p>…백제는 왜국으로부터 가라 서부(임나 4현)의 지배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왜국에 오경박사(五經博士)를 파견하였다. 그림. 512년, 백제가 양도 받은 가라의 4현</p>	28	2003년 검정본에서는, ‘그림. 512년, 백제의 영유를 인정한 가라의 4현’으로 되어 있다.
	三省堂	日本史B	<p>…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오무라지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連の大伴金村)가 백제에 대해 가야로 영토를 확대하는 것을 인정한 바도 있어서(주 :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거점을 잃었다고 하여 오모토노 가나무라는 책임을 추궁 당하여 실각하였다.), 신라와 백제의 가야에 대한 침입이 강화되어 562년, 가야는 신라에 멸망하였다.</p>		
	山川出版	高校 日本史改訂版	<p>… 백제·신라는 국내 지배 체제를 정비하자, 야마토 정권과 강하게 맞어져 있던 가야 여러 나라로 진출하게 되었다. … 또 오무라지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連の大伴金村)가 한반도에 대한 정책 실패도 있어서 물러나자, … 562년 신라는 마침내 가야 여러 나라를 지배 하에 넣었고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에 대한 발판을 잃은 것이다… 26쪽 그림. 6세기 전반의 한반도 고구려의 남하와 신라의 서진을 받아 백제는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가야 서부를 지배 하에 넣었다. 이 무렵 야마토 정권의 당사자인 오모토씨(大伴氏)는 이후 권위를 잃었다.</p>	26-27	‘4현 할양’ 기사 보이지 않음
	山川出版	新 日本史	<p>한반도에서는 6세기에 들어서자 백제·신라도 세력이 강해졌는데, 백제는 강국 고구려의 남하에 따라 남천(南遷)하였고 512년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 남부의 가야 여러 나라 중 서부의 네 개 나라(‘임나 4현’이라고도 칭한다)를 백제가 지배하도록 승인하였다. 신라도 강대화하여 562년에 이르기까지 가야 여러 나라는 백제와 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가 멸망하였고 야마토 정권도 한반도의 거점을 잃게 되었다.</p>	33	거점’은 2003년 도판에는 ‘창구’
	清水書院	日本史B 改訂版	<p>…고구려의 군사적인 압박으로 괴로워한 백제와 신라는 왜국과 우호 관계에 있던 가야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560년대에 이들 여러 나라를 병합하였다.</p>	31	‘4현 할양’ 기사 보이지 않음. 2003년판과 표기 같음.

비고 2003년 검정본 중에서 2007년 검정본을 조사한 것은 제외하였다.

[비평문]

이찬희

필자는 첫째, 한국의 역사 교과서 내용과 기술 내용의 변천에 대해 논술하고 둘째, 일본 역사 교과서의 신화 및 한국 고대사, 한일관계사에 관한 기술에 대해 검토하여 한일 양측의 교과서에 현재의 역사학의 연구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가 검토한 내용 중 한국 교과서의 단군 및 고조선 관련 부분과 삼국의 건국연대,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신뢰성문제 등의 내용을 다룬 것은 이해되나, 비평자는 중국계 관련 기술의 소략 문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고대 한일관계사와는 관계없거나 거리가 먼 주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교과서에 대한 발표자의 지적은 필자의 의견으로 존중하고자 한다. 이왕이면 한일 역사교과서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검토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일단 한국교과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1. 단군신화 및 고조선의 건국 연대 고증문제

필자는 단군관련 기록이 11세기 고려시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단군개국 연대인 기원전 2333년이란 연대관도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로서 한국학계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한국 학계의 고고학적 성과를 활용한 움직임 소개하여 나름대로 한국학계의 연구동향을 이해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진행한 기존의 연구성과로서 특히, 단군의 고아시아족의 시조인식의 계승 가능성과 5세기 고구려 국내성지역 고분벽화에서 단군신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 한일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군관련 인식과 기록이 11세기 고려시대 이전 고구려시대대로 상승하며 고구려 건국세력의 시조인식으로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군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2333년으로 확정하는 것은 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아니라고 본다. 단군의 건국 연대 문제는 건국시조에 대한 인식의 연대로서 한국학계에서는 청동기시대를 연대 상승과 함께 고아시아족의 문화포용이란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연대의 객관화를 추진하고 있다.

2.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문제

한국의 국사교과서는 삼국의 건국연대를 삼국사기에 따라 그 紀年을 서술하였는데, 실제 삼국의 등장에 대한 서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기술하여 不整습을 나타낸 점은 한국학계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역사교과서가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면 다양한 방안으로 서술하게 되어 해소될 문제이다. 기존 교과서에서도 삼국사기적 인식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역사기록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소개하였고 현실적 상황은 유연하게 이해해야 함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필자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삼국사기》에 보이는 여러 나라, 여러 왕의 활동 기록에 대한 문제제기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신뢰성문제는 삼국 초기 왕들의 행적에 대한 논란으로 연결되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제의 경우 최근 풍납토성 발굴을 통해 기원전 1세기 축성 사실이 확인되면서 삼국사기 기록 내용과 시대적 정합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제 초기 왕들의 행적이 역사적으로 재확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구려의 경우도 최근 점증되는 고구려 관련 고고학적 자료의 증대에 의해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고 있고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한국 고대사에서 중국 세력기술 문제

한국 고대사에서 중국 세력이 관여한 역사를 기술하는 문제는 역사기록을 현재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특히, 국정교과서 틀에서 내용체계를 세우는 입장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즉, 필자가 지적한 “‘중국계’ 관련 기술이 ‘한국계’에 비해 적거나 혹

은 거의 무시되는 상황”은 국정교과서의 입장이란 점에서 지적될 부분이지 비판될 부분은 아니다.

이 문제는 최근 한국고대사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기자동래설의 허구 가능성 및 한군현의 친중국세력에 의한 교역 중심 거점 등의 해석을 통해 새롭게 파악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낙랑군의 문제도 당시 동아시아제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교과서에 다양한 학설을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여러 종류의 검인정 역사교과서가 출판되면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집필자 답변]

줄고에 대한 이찬희씨의 지적은 존중할만한 것도 있지만 비평에는 꼭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다. 지면 관계상 모든 비평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겠다.

이찬희씨는 단군신화의 사료 상의 상한을 11세기로 하고 고고학의 성과로 보아 단군 조선의 건국 연대를 기원 전 2333년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줄고에 대하여, 5세기 고구려 벽화 중 단군신화와 관련이 추정되는 그림에서 단군 관련 사료가 고구려 대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 한국 고대사 학회의 이제까지의 연구 동향에 근거하여 비평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기원 전 2333년으로 하는 한국 고대사 연구자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송호정[2007 <국가별의 연구의 흐름 고조선·부여·삼한> 한국 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서경문화사)]은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청동기문화가 전개된 기원전 8~7세기로 하고 있다. 줄고에서는 교과서의 서술도 이러한 학회의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편이 좋지 않은가라고 지적한 것인데 이러한 연구자의 견해를 이찬희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면 매우 감사하겠다.

이어서 고구려 대에 단군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점인데, 과연 集安의 각저총의 벽화에 서 곰, 호랑이를 발견하여서 단군신화와 관련시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회 전체의 공통된 이해가 된 것일까. 본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 가령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고구려에서의 단군 신화의 존재와 결부시키기에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요청된다. 이찬희씨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斯界의 통일적인 견해로 간주해서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